

고전기에서 후기고전기로의 마야 사회의 변화: 돌을새김의 분석

정혜주
(부산외국어대학교)

1. 머리말

현재의 멕시코 만 유역에 한 무리의 사람들과 과테말라 서부의 태평양 해안에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된 마야문명은 약 기원전 2000년 전부터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과테말라의 산지, 벨리즈 및 온두라스 밀림 지대 쪽으로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커다란 도시를 세우며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다.

500-600년경에는 과테말라의 페텐(Peten)에서 멕시코의 치아빠스(Chiapas) 지방에 이르는 넓은 열대 밀림 지역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시로 뒤덮었다. 습기와 후덥지근한 열기를 뱀는 페텐과 치아빠스의 숲속은 하얀 석회암으로 된 건축물로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열대우림의 나무들보다 더 높은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 위에 돌을새김으로 건설한 왕들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씨로 남겼다. 그들은 천문을 관측하여 달력을 남겼다. 날씨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었고, 이웃나라들과 교역을 하거나 전쟁을 하였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높고 현란한 건축물과,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상형문자, 정교한 달력,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화려한 채색 토기 등을 만들었다. 마야문명이 가장 화려한 면모를 자랑했던 이 시기를 후일의 학자들은 ‘고전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화려함의 극치

를 달렸던 고전기의 마야 지대의 도시들은 약 800년부터 버려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살지 않자 열대의 풀과 나무들은 빠른 속도로 도시를 뒤덮었다.

마야문명은 900년 이후에 유카탄 반도의 북부지방에서 화려한 면모를 다시 나타내었다. 그들은 다시 거대한 피라미드와 정교한 건축물들과, 건물들을 잇는 포장된 도로를 건설하고 토기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건축 형태와 종류, 그 위에 남겨놓은 돌을새김의 내용 등은 그 전과는 달랐다. 이 시기를 ‘후기 고전기’라 부른다.

1400년 이후에 석조건물의 건설 등이 모두 중단되면서 마야문명은 스러졌지만 마야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선조들이 살았던 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

수많은 마야학자들은 고전기 마야문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한 이유를 찾고 있다.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기 고전기의 마야 사람들은 사는 장소를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전기 시대를 사회적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2. 고전기와 후기 고전기

서기 약 300년부터 빼툰의 서부와 동부에서 본격화된 도시의 건설은 고전기의 시작으로, 순식간에 풍요로운 빼툰의 중부지방, 치아빠스, 온두라스 북쪽으로 전파되었다. 작은 강들과 호수, 밀림으로 천연적인 방어물이 이루어진 이곳은 독립된 지역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도시국가로 발전하였다. 우악삭툰(Uaxactun), 꾸에요(Cuello), 꼬뻘(Copan), 띠갈(Tikal), 나랑호(Naranjo), 엘미라도르(El Mirador), 보남팍(Bonampak), 깔라끄물(Calakmul), 약스칠란(Yaxchilan), 팔렌께(Palenque) 등, 아하우(Ahaw)¹⁾가 다스리는 큰 도시와 아하우와 연맹한 사할(Sahal)²⁾이 지배하는 작은 도시가 주위의 나라들과 동맹 또는 싸움을 하였다. 수없이 많은 피라미드와 아하우들의 고귀함과 업적을

1) 아하우(Ahaw)는 마야 도시국가의 왕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호칭이다.

2) 사할(Sahal)은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아하우가 다스리는 나라와 연맹하여 존재한다.

자랑하는 비문과 돌을새김을 남긴 비석과 제단은 도시국가간의 경쟁의 산물로, 6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800년경부터 천년이상 지속되어온 아하우 왕권질서는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유까탄 반도의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은 뾰뾰한 숲과 호수로 나뉜 빼멘과는 달리 초원으로 이루어진 열대 사바나의 넓은 대지였다. 그들은 작은 마을 단위로 분리된 도시국가의 연합인 아하우-사할(Ahaw-Sahal) 체제의 마야 정치 질서에서 다양한 민족과 넓은 지역을 포함하면서도 중심점이 있는 나라를 지향한 시기가 후기고전기인데, 그 중심에 치첸 이즈아(Chichén Itzá)가 있었다. 치첸 이즈아는 고전기 마야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 경로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토착민과 연합하여 발전시켰다. 다양한 세력이 모인 이들은 공동으로 정치를 하는 혁신적인 물떼빨(Multepal)³⁾ 제도를 세우고 새로운 발전을 꾀하였다⁴⁾.

마야문명의 고전기와 후기고전기는 시기적으로는 400-800년, 800-1200년, 지역적으로는 과테말라 빼멘에서 멕시코 유까탄반도 북부로 중심이 바뀌었다. 정치 및 사회체제가 바뀌자 문화와 그 표현하는 양식도 바뀌었다. 띠갈의 ‘제 4신전’과 같은 높은 머리장식을 지니고, 급격히 경사진 피라미드 위에 신전을 지었던 고전기에 비하여, 후기 고전기에는 치첸 이즈아의 ‘꾸꿀칸 신전’과 같이 머리장식이 없고 안정감이 있는 피라미드를 세우거나, 사일(Sayil)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층의 주거 건물 위에 신전을 세우는, 새로운 유형도 만들었다. 또한 여러 개의 작은 방을 잇고 기둥을 많이 배열하여 열린 공간을 형성한 부속건물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방을 연결한 고전기의 닫힌 공간의 건물과는 구조가 달랐다⁵⁾.

또한 무덤의 부장품으로 넣은 토기의 종류도 달라졌다. 대부분 붉은 바탕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상형문자를 써 넣은 화려한 채색 토기에 비하여 후기

3) 물떼빨(Multepal)은 형제 또는 여러 가문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지배하는 정치형태로, 치첸이즈아에서는 형제 및 지역호족의 대표인 4명이 함께 다스렸다.

4) Schele, Linda and David Freidel, *A Forest of Kings*,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New York, 1990.

5) Ruppert, Karl *Chichen Itza: Arquitectural Notes and Plans*, 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pub. 595, 1952.

고전기에는 황갈색, 또는 회색의 바탕에 그림을 새기거나, 검은 색깔로 줄무늬를 그려 넣은 단순한 문양을 선호하였다⁶⁾.

이 모든 것은 고전기와 후기고전기의 정치, 사회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글에서는 고전기와 후기고전기의 달라진 점을 제전중심지의 복합군⁷⁾에서 피라미드와 그에 부속된 건물에 돌을새김으로 남긴 의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할 자료는 의례의 장면이 분명하고 해독이 이루어진 고전기의 약스칠란(Yaxchilan)과 후기고전기의 대표적인 도시인 치첸 이쯔아(Chichen Itza)를 택하였고, 여러 ‘돌을새김’ 중에서는 두 도시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 “왕권 의례” 경우에서 찾았다. 왕권의례는 왕권을 유지, 행사하는 의례와 왕권계승자의 의례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3. 왕권 의례

3.1 약스칠란⁸⁾

약스칠란(Yaxchilan)은 과테말라에서 멕시코로 흐르는 우수마신따(Usumacinta)⁹⁾ 강가에 있는 600-800년 사이에 발전한 고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의 하나이다.

6) 정혜주, 「치첸 이쯔아 연대기의 문제점과 해석: 슬레이트 토기의 분석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연구』제 21권, 4호, 113-138쪽, 2008

7) centro ceremonial complex라고 하며 고전기의 피라미드와 그 부속건물을 포함하는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 주거용 건물과 도로까지 포함하는 도시 안에 건설된 복합체를 말한다. 작은 도시 안에는 하나의 복합체만 있지만, 치첸 이쯔아와 같은 거대 도시에는 몇 개의 복합체가 존재하였다.

8) Martin and Grube, *Chronicles of the Maya Kings and Queens*, London: Thames & Hudson, 2000), 150-161쪽, Schele and Freidel, *A Forest of Kings*, Quill, 1998, 265-305쪽에서 요약.

9) 과테말라의 페텐(Peten)에서부터 멕시코의 치아빠스(Chiapas)와 따바스코(Tabasco)주를 지나 멕시코만으로 흐르는 긴 강으로, 고전기 마야문명의 수많은 도시들이 이 강을 따라 세워졌었다.

약스칠란의 역사는 첫 지배자인 요아뜨-발람¹⁰⁾ 1세(Yoaat B'alam I)가 왕권을 세우는 약 359년부터 시작된다. 629년에 등극한 새-재규어 2세부터 약스칠란은 고전기 마야시대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40년을 재위하며 나라의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이참나-발람 2세(Itzamnaaj B'alam II)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다. 방패-재규어 왕으로 알려진 이참나 발람 2세는 60년을 재위하였다. 그는 제 44신전을 세우고 그의 아내 까밭-속(K'ab'al Xook) 숙녀와 함께 왕위계승 의례, 후계자 지명 의례의 돌을새김을 남겼다. 그의 사후 742-752년, 10년간 약스칠란에는 왕이 없다가 752년, 9.16.1.0.0¹¹⁾ 까툼(katun)¹²⁾을 마감하는 날에 새-재규어 4세(752-768년 재위)가 43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이참나-발람의 세 번째 왕비인 익(Ik')-두개골 숙녀의 아들이었다. 새-재규어 4세는 12개 이상의 건물을 세운, 가장 정력적인 건축가였다. 그는 이참나-발람 2세에 이어, 자신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신화적 존재로 만드는 상형문자의 계단의 공놀이 장면을 제작하였다. 그는 별명을 “이십 명의 포로의 그”라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정복군주였는데, 전쟁의 승리를 잘 포장하여 가장 ”정복적인 국가“로 보이게끔 하였다¹³⁾. 왕위는 아들인 이참나-발람 3세(Itzamnaaj B'alam III)에게로 이어졌다. 아버지 시절에 비해 분명히 기세도 자원도 부족했던 때에 이참나는 아버지 시절의 이루어진 질서와 정치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신전을 보수하고, 비석을 세우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고전기 마야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800년에 아들 끼니치(K'nich)-따뜨부(Tatb'u)-두개골에게 왕위를 넘겼지만, 그는 80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신전 33은 여러 층으로 올린 피라미드의 바탕위에 방문이 세 개 있는 신전

10) 발람(Balam)은 마야어로 ‘재규어’를 뜻한다. 재규어는 왕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약스칠란 왕가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11) 마야의 장주기 달력 표기, 13.0.0.0.0(13박툼이라 읽는다, 약 5,130년)을 주기로 바뀐다. 따라서 마야의 장주기는 현재 사용하는 줄리안력으로 정확히 바꾸어 쓸 수 있다.

12) 마야의 시간단위로, 1 까툼(Katun)은 20년이었다. ‘까툼을 마감한다’는 것은 20년을 채웠다는 뜻이다.

13) 약스칠란은 띠갈, 빨렌케 등 주위의 국가들에 비하여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였다.

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명의 전신상의 돌을새김과 6층 이상의 머리장식을 올린 건물이다(그림 1a). 대들보에 있는 돌을새김이나, 전신상 및 상형문자의 계단에 있는 글씨와 그림은(그림 1b) 열린 공공의 장소인 신전에 남겨졌으므로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약스칠란(Yaxchilan, México)의 대들보 24, 25와 17¹⁴⁾



〈그림 1〉 높은 머리장식을 지닌 신전 33 맨 위에 6층이 남아있는 격자 모양의 머리장식, 전신상이 조각되어있는 중간부분, 그리고 세 개의 입구가 보이는 방, 그 아래에 상형문자가 새겨진 계단이 보인다. 세 입구의 대들보에는 돌을새김과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림 2〉 제 23신전, 대들보 24¹⁵⁾, (출처: Lintel 24, Yaxchilan, México, 대영박물관 소장)

상형문자 번역:

왼쪽 위, 7자 네모 안:
“9.13.17.15.12 5웁(Eb) 15막(Mac) (709년 10월 28일), 그는 피를 흘렸다, (미해독 부분), 4까툼(Katun)¹⁶⁾의 군주이며, 아호 아하우알(Ah Ahaual)¹⁷⁾을 포로로 한 방패-재규어, 약스칠란의 군주”

왼쪽 중간, 긴 네모 안:
“여 주군, 속(Xoc)속녀는 피를 흘렸다.”

14) 상형문자는 쉘리와 밀러(1992)의 해독을 따라 필자가 번역하였다.
15) Schele and Miller, *The Blood of Kings*, London: Thames & Hudson, 1992, p.187.
16) 1 까툼(Katun)이 20년이므로, 4번째 까툼은 그가 60-80세 사이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17) 아호 아하우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를 포로로 한 것을 비문에 남긴 것으로 보아 정복지의 강력했던 주군으로 추정한다.

서기 709년 10월 28일, 어떤 이유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미해독), 약스칠란의 왕인 방패-재규어는 스스로의 피를 흘렸다(그림 2). 이 장면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의 뺨에 속 숙녀¹⁸⁾의 뺨에 있는 것과 같은 긴 나선형과 그 주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피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이미 피를 흘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왕비인 속 숙녀가 혀에서 피를 뽑는 의례를 도우고 있다. 속 숙녀는 헛바다를 가시달린 새끼줄이 뚫고 지나가게 하여 흐르는 피를, 발치에 있는 그릇에 담긴 종이에 모으고 있다. 왕의 머리 꼭대기에는 잘린 머리가 얹혀있어서 희생의례가 이미 있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희생의례임을 시사한다. 그가 들고 있는 긴 막대는 햇불이다¹⁹⁾. 그가 햇불을 들고 있는 것은 어두운 공간, 즉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례가 건물 안의 어두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햇불을 묘사한 것은 ‘어둠’을 강조한 것, 즉 ‘성스러운’ 공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규어 무늬의 신발을 신었고, 허리에는 ‘네 방위의 꽃’의 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었다. 속 숙녀가 입은 옷에는 뱀 무늬가 그려져 있고, 그녀가 쓴 왕관은 사다리꼴의 뜰랄록(Tlaloc) 관이다. 관의 뜰랄록은 금성을 상징하며, 전사의 신이다²⁰⁾. 또한 뜰랄록은 피를 흘려 희생을 하는 신이다²¹⁾. 재규어와 뱀은 둘 다 왕권을 상징한다. 네 방위의 꽃은 지상에서 네 방향, 그리고 가운데는 중심을 의미하는 오방위인데, 그 중심을 돛자리 모양으로 두었다. 마야문명에서 돛자리는 지배자가 앉는 자리이다. 사방을 지배하는 중심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 무늬로서, 역시 군주의 속성을 보여준다. 방패-재규어의 머리에 달린 머리 및 뜰랄록의 상징으로 보아, 전사와 관계되는 희생의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문 및 대들보의 그림 전체가 두 사람이 군주로서 희생의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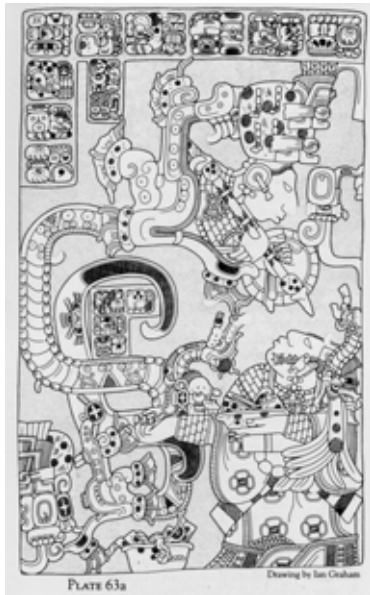
18) 비문에 왕은 아하우를 사용하여 지배자임을 밝히고, 아내인 속에게도 바깥(Bacab), 즉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직함을 붙이고 존칭으로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존칭으로 ‘숙녀’라고 붙였다.

19) 위의 책, 177쪽.

20) 위와 같음.

21) 칼 토베/이용균, 천경효 공역, 『아즈텍과 마야 신화』, 범우사, 1998, 100쪽.

이들이 스스로의 피를 받아 무엇을 하였는지는 대들보 24의 장면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대들보 25의 돈을새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제 23 신전, 대들보 25²²⁾,
(출처: Lintel 25, Yaxchilan, México, 대영
박물관 소장)

상형문자 번역:

위쪽의 문자:

“9.12.9.8.1 5이믹스(Imix) 4막(Mac) (681년 10월 23일), 4 까툼의 군주이며, 아호 아하우알을 포로로 한 방패-재규어, 약스칠란의 군주가 피를 흘리자 ‘부싯돌-방패’, ‘불과 물의 그’가 나타났다.”²³⁾

말려있는 뺨의 꼬리 안쪽의 문자:

“옥수수 숙녀, (미해독) 약스칠란의 군주 속(Xoc) 숙녀이다.

681년 10월 23일, 장면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방패-재규어가 피를 흘렸다고 기록되어있다. 그의 피를 모은 종이는 속 숙녀가 갖고 있는 그릇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릇에는 종이이외에 왼쪽에는 가오리의 뼈, 오른쪽에는 흑요석 칼(또는 침)이 얹혀 있어서 남성이 피를 흘린 흔적을²⁴⁾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속 숙녀 역시 피를 흘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녀의 뺨에 방울이 있는 긴 나선형의 피의 흔적이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발치 왼쪽에 또 다른 그릇에 피를 모은 종지와 새끼줄이 있기 때문이다. 새끼줄은 그녀의 헛바닥을

22) Schele and Miller, *The Blood of Kings*, London: Thames & Hudson, 1992, 188쪽.

23) 이 부분은 위의 책과 Martin and Grube, *Chronicles of the Maya Kings and Queens*, London: Thames & Hudson, 2000, 125쪽을 사용하여 해독했다.

24) 남자들은 가오리 물고기의 뼈 또는 흑요석을 사용하여 몸을 특정부위를 찔러 피를 내었다.

통과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다. 아마도 장면에 없는 왕이 불을 내어 종이를 태우자 속 숙녀는 연기 속에서 짝 벌린 뱀의 입속에서 창을 가진 조상(또는 조상신)이 나타나는 환영을 보았다(그림3). 이 장면은 좌우가 뒤집혀 있다. 즉 거울에서 보는 형상이다. 이는 신이 인간을 보는 방향, 즉 신성한 공간(신전)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속 숙녀는 대들보 24에서 방패-재규어 왕이 입었던 치마와 같은 무늬, ‘네 방향의 꽃’이 그려진 치마를 입었다. 아래쪽에 왼편을 향하여 벌어진 뱀의 입과 위쪽에 오른쪽 편을 향하여 크게 벌어진 뱀의 입에서 창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머리에 재규어의 점이 그려진 관을 쓰고 있고, 왼쪽 아래의 모습에서는 사다리꼴의 딸랄록 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는 ‘부식돌-방패’ 및 ‘불과 물의 그’로 불리는 약스칠란의 수호신이다²⁵⁾. 이 수호신은 딸랄록 관과 창을 쥐고 있는 전사²⁶⁾, 그리고 왕을 의미하는 재규어 점으로 미루어보면 이전의 왕이었던 조상신이라고 본다. 즉, 속 숙녀가 피를 받치자 그것을 인정하는 대담으로 조상신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들보 24는 왕과 왕비가 의례를 하는 장면을, 대들보 25는 그 의례를 조상신이 인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대들보 24의 사건은 709년에 있었고 대들보 25는 681년, 즉 25는 24의 사건보다 2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두 사건은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비석은 대들보 24에서 피를 흘려 대들보 25에서 조상신의 응답을 얻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즉 의례가 같은 형식으로 되풀이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대들보 17에 그려진 것으로, 새-재규어 왕과 익스 숙녀의 아들인 후계자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받치에 놓인 그릇에 담긴 종이에 피를 모으고 있다.

25) 위와 같음, Schele and Miller, *The Blood of Kings*, London: Thames & Hudson, 1992, 188쪽.

26) Schele and Freidel(1990)에 의하면, 마야의 왕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금성을 대리하는 전사였다.



〈그림 4〉 대들보 17²⁷⁾ (Lintel 17, Yaxchilan, México, 멕시코국립인류학박물관 소재)

상형문자 번역:

가운데 맨 위:

“3까뜰의 군주, 새-재규어는 첼-떼 (Chel-te)가 태어나서 피를 흘렸다”

가운데 중간:

“20인을 포로의 그, 약스칠란 I과 약스칠란 II의 군주”

맨 아래:

“그녀는 여 군주이며, 옥수수 숙녀이며, 재규어 숙녀인 익스(Ix) 숙녀이다.”

‘3까뜰의 군주, 새-재규어’, 즉 새-재규어 왕이 40-60세 사이에 첼-떼(Chel Te)가 태어났다. 첼-떼는 후일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이다²⁸⁾. 새-재규어는 “20인의 포로의 그”라는 별명을 사용했고, 당시의 약스칠란은 I과 II로 나뉘었을 만큼 확장이 되었다. 그는 머리에 깃털로 장식된 해골 관을 쓰고 두터운 돛자리 위에 앉아서 손에 송곳같이 보이는 것을 들고 있다. 해골 관은 대들보 24에서 방패-재규어가 쓴 잘린 머리와 같은 희생의 의미이며, 돛자리는 지배자가 앉는 자리이다. 그의 발 앞에 놓인 그릇에 피를 모으는 종이가 쌓인 것으로 보아, 그는 빠(아마도 가오리의 빠)로 된 송곳을 갖고, 왼쪽다리에 가려 장면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자신의 성기를 찢어 피를 흘리고 있다(그림4). 앞에 앉은 익스 숙녀는 주군의 뜻을 지닌 ‘바깹(Bacab)’의 직함 이외에 왕권을 상징하는 ‘재규어’, 마야사람들의 최초의 조상을 의미하는 ‘옥수수’²⁹⁾의 직함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녀는 ‘네 방위의 꽃’의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대들보 24와 25에서 속 숙녀가 썼던 것과 같은 뜰랄록 관을 쓰고, 혀에 새끼줄을 통과시켜 피를 흘리고 있다. 발 앞에 놓인 그릇에 새-재규어의 피와 함께 그녀의 피도 모이고 있다. 이 피를 모은 종이는 이미 본 대로 ‘성스

27) 위의 책, 132쪽.

28) Martin and Grube, *Chronicles of the Maya Kings and Queens*, London: Thames & Hudson, 2000, 132쪽.

29) 마야사람들의 최초의 선조는 옥수수신이었다. 마야의 왕은 옥수수신의 후예들이다.

러운 어둠‘속에서 태워져’조상신‘의 환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약스칠란의 세 대들보의 그림은, 대들보 24와 25의 사건은 아직 해독되지 않았으나, ‘세자의 태어남’과 같은 왕권과 관계된 희생의례를 나타내고 있다. 왕권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날에 왕 또는 왕비가 자신들의 피를 흘려 조상신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례는 왕권과 피의 관계, 스스로의 피를 흘리는 ‘자기희생’, 그리고 조상신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비문의 주제는 왕가 혈통의 합법성이다. 특히 피라미드 위의 신전의 대들보에 기록함으로써 이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3.2 치첸 이쯔아³⁰⁾

고전기 마야의 나라들의 경쟁은 동맹과 반목을 되풀이하는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되풀이되는 싸움은 경작을 해야 할 땅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사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게 되었다. 800년 이후, 고전기 마야문명이 기울어지자 이 현상은 두드러졌다.

까툰 8 아하우(Katun 8 Ahaw, 672-692)³¹⁾에 치첸 이쯔아가 알려졌고, 유까판 반도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민은 계속되었다. 이들 전사와 귀족은 고전기 마야 문명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이동하면서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지방의 유력자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해서 머무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쯔아(Itzá)”라고 불렀다. 칠람발람(Chilam Balam)³²⁾에 의하면 그들의 이주는 80년이 걸렸고, 이동 경로는 유까판 반도

30) Landa, Fray Diego de, *Relación de las cosas de Yucatan*, Editorial Porrúa, S. A., 1986; Roys, Ralph, L., *The Book of Chilam Balam Chumayel*,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Norman, 1973; Schele, Linda and David Freidel, *A Forest of Kings*,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New York, 1990에서 요약함.

31) 후기 고전기, 특히 칠람 발람에서 사용한 연대로, 256년이 주기이다. 한 까툰은 20년, 숫자는 1에서부터 13으로, 하나씩 건너뛰며 사용한다. 즉 8 아하우, 4아하우, 2아하우, 13아하우, 11아하우 등으로 날짜를 기록한다.

32) 칠람은 마야어로 “신의 말씀의 해독자”, 발람은 “재규어”를 의미하며 동시에 유까판에 매우 중요한 성씨이다. 따라서 칠람 발람은 유까판에 남아있는 마야사람들의 “예언의 책”으로, 추마엘(Chumayel), 마니(Mani), 띠시민(Tizimin)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칠람 발람은 마야어를 알파벳으로 기록하였다. 스페인이 점령하

의 서쪽, 멕시코만을 따라 캄페체(Campeche) 해안으로 이동하여 지빌찰툰(Dzibilchaltun) 등, 반도의 서북쪽에 흔적을 남겼다. 다른 한 편은 반도의 동쪽, 키타나로(Quintana Roo) 주의 해안을 따라 쉘리토스(Isla Cerritos)섬을 거쳐 이사말(Izamal)을 정복하고 치첸 이쓰아에 닿았다. 치첸 이쓰아에는 이쓰아족들뿐만이 아니라 고전기마야가 쇠퇴할 무렵에 역시 혼란해진 멕시코 고원의 떼오티우아칸(Teotihuacan), 멕시코 만 유역의 뿌툰(Putun) 등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든 국제적인 도시였다.

이 국제적인 도시의 맹주는 이쓰아족이었지만, 각각 자기의 문화와 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을 규합하고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하여 이쓰아의 귀족들은 역시 토착의 유력자의 딸과 결혼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치첸 이쓰아의 토착 귀족은 꼬콤(Cocom)이었다³³⁾. 꼬콤(Cocom)의 딸들과 결혼한 뒤 이쓰아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외가에서 찾았다. 치첸 이쓰아의 비문에 14번 이름을 남긴 까꾸빠칼(Kakupacal)은 그의 어머니, 까얌 쿡(Kayam Kuk)³⁴⁾과 외할머니 톤 아하우(Ton Ahau)³⁵⁾의 이름을 새겨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까꾸빠칼은 더 이상 자신의 가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전기 마야의 왕들처럼 수많은 건물을 헌정하였다. 까꾸빠칼은 “꾸빠칼 신전”을 (710-910년)에 헌정하였고, 원로들이 모여 일하는 “전사의 신전”과 부속건물들을 세워 헌정하였다. 그리고 귀족들이 사는 “상형문자의 기둥”의 집을 832년(10.0.2.7.3)에, “수녀원”(610-1100년), 그리고 전문적으로 천문을 관측하는 “까라꿀”(710-850년)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864년(10.1.15.3.6)에 마야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구기장”을 건설하여 봉헌하였다. 탄소 연대 측정에 의하면 치첸 이쓰아의 대부분의 건물은 800-948년 사이에 건설되었다.³⁶⁾

고 있던 당시에도 많은 마야사람들이 갖고 있었다.

- 33) RINGLE, William M. "Who was who in ninth century Chichen Itza", *Ancient Mesoamerica*,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233-43.
- 34) Schele, Linda and David Freidel, *A Forest of Kings*,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New York, 1990, 363쪽, 위와 같음, Templo de Tres Dinteles와 Un Dintel에 기록되어 있다.
- 35) 위와 같음. Las Monjas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마다 헌정기념 비문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건물의 헌정의례가 있었던 날짜, 이름, 그리고 함께 한 여러 주군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즉 건물을 헌정하면서 토착민 및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규합하는 데에 역점을 둔 것이다. 여러 부족들을(또는 집안들을) 연합하여 기초를 다진 치첸 이즈아는 서쪽으로는 뽁(Puuc)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말(Uxmal)을 물리치고, 남쪽으로는 고전기 마야지역과 연결된 꼬바(Coba)의 지지를 받는 야수나(Yaxuna)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유카탄 반도 북부의 패권을 잡고 번영하였다.

치첸 이즈아는 약 1200년경부터 토착인, 우낙켈(Hunac Ceel)의 반란을 시작으로 쇠퇴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즈아족은 마야반(Mayapan)으로 물러섰다가 1400년경에 그들의 고향인 고전기 마야지역의 페텐(Peten)으로 되돌아갔다.

치첸이즈아의 네 대들보의 신전(Templo de Cuatro Dinteles)



〈그림 5〉 대들보 1, 네 대들보 신전, 치첸이즈아³⁷⁾

상형문자해석³⁸⁾:

A1-D8

9라마뜨 11약스(10.2.12.1.8, 881년 7월 13일),

13툼 1아하우의 하루,

건물을 기념하는 그의 대들보이다. 성스러운 9 아하우 약스-똥 (?) 아하우, 그의 이름은 (?) 성스러운 치첸 이즈아 (?) 주군 (?) 까꾸빠갈 까윌 아하우 소유(한자?), 그는 불을 지폈다 (?) 구기장 (?). E1-H8

11약스, 성스러운 9 아하우 약스-똥 (?) 아하우, 그의 이름은 긴 까미, 불의 주군, 그는 불의 주군 아호-물룩-뚝과 형제관계이다.

36) Smith, Robert E., *The Pottery of Mayapan*, Papers of the Peabody Museum vol. 66, Harvard University, 1971.

37) Krochok, Ruth, *Hieroglyphic Inscriptions at Chichen Itza, Yucatan, Mexico: The Temples of the Initial Series, the One Lintel, the Three Lintels, and the Four Lintels*, PRAMW23, 1989, 10쪽.

38) Schele, Linda and David Freidel, *A Forest of Kings*,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New York, 1990, 359쪽, (?)은 아직 해독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치첸 이쓰아에서 문자로 쓰인 역사는 매우 짧다. 10번째 박뚝³⁹⁾의 일부 기간만 기록하였다. 10번째의 박뚝은 830년에서 1200년 사이의 기간인데, 치첸이쓰아에 남겨진 마지막 기록은 998년이다⁴⁰⁾. 대부분의 기록은 까꾸빠갈이 건물을 헌정하면서 남긴 비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신과 가계의 위대함을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없다. 대신에 건물의 헌정의례가 있었던 날짜, 이름, 그리고 함께 한 여러 주군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네 대들보의 신전(Templo de Cuatro Dinteles)’의 헌정기록인데, 그림 5는 그 중 첫 번째 대들보에 새겨진 내용이다. 왼쪽 두 줄(A와 B)에서 이름이 해독되지 않은 한 명의 주군과 나머지 두 줄(C와 D)에서 ‘깁-끼미’라는 이름의 주군을 언급하였다. 그는 또 다른 ‘불의 주군’ 아호-물룩-뚝과 형제관계라고 하였다. 이 비문 하나에서 세 명의 주군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양쪽의 날짜가 같은 것으로 보면 같은 날 이루어진 일이다. 그들은 ‘불을 지피는’ 의례를 하였고, 각각 ‘불의 주군’ 이란 뜻의 “야하우 깁(yahaw kak)”이라는 직함을 가졌다⁴¹⁾. 불을 지피는 자가 바로 왕이며, 불을 지피는 행위는 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비문의 D5, 소유를 의미하는 글자 다음에 까꾸빠갈 까윌(Kawil)이 나온다. 문맥상 까꾸빠갈 까윌을 소유한 자가 불을 지폈다고 보면, 소유의 의미가 직함인지 혈연관계를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까윌은 고전기부터 왕의 홀을 상징하는 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까꾸빠갈은 왕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비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건물을 헌정한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다. 비문만을 보면 주군의 이름과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 위하여 헌정한 것처럼 다른 내용이 없다. 식민지 초기의 마야문서⁴²⁾를 연구한 학자들은

39) 마야 달력의 날짜로, 10번째 박뚝은 10.0.0.0.0으로 시작되는 때이다. 830년-1200년 사이이다.

40) Schele, Linda and David Freidel, *A Forest of Kings*,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New York, 1990, 356쪽.

41) 위의 책, 359쪽.

42) 1520년 전후로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자 마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 및 이야기들을 알파벳을 이용하여 문서로 남겼다. 즉 마야어로 된 내용이나 알파벳으로 쓰인 것이다. “칠람발람의 서(El libro de los libros de Chilam Balam)”가 대표적이다.

(Roys, Edmonson, Vazquez) 각 부족의 대표인 원로들이 모여서 전쟁, 과종과 종교 의례 등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물 떼빨(*mul tepal*, 연합 지배)"이라는 사회적-정치적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다.⁴³⁾ 대들보의 비문은 치첸이쓰아를 지배하는 여러 군주들의 모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치첸이쓰아의 세리에 이니시알 건축군



〈그림 6a〉 치첸이쓰아 현지 소재(필자 찍음)



〈그림 6b〉 치첸이쓰아 현지 소재(필자 찍음)

5C4 건축군,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문이 있는 집(6a), 또는 단일 건축물(6b)이 있다.

치첸 이쓰아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건축군이 여러 개 있다. 피라미드와 구기장 및 신전으로 이루어진 제전중심의 건축군과 세리에 이니시알⁴⁴⁾ 건축군(EI

43) 위의 책, 361쪽.

44) '세리에 이니시알(Serie Inicial)', 마야 비문의 달력에서 시작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이는 고전기 마야 달력의 특징이다. 이 복합 건축군에서 고전기 달력이 새겨진

Grupo de Serie Inicial)과 같이 피라미드와 공공건물을 포함하여도 거주지역의 특징을 갖는 것도 있다. 세리에 이니시알 건축군의 5C4건물에는 후계자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돌을새김이 남아있다. 그림6a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의 기둥 위쪽의 벽면 전체에 돌을새김이 있다. 그림 6b 역시 기둥 위쪽의 벽면 전체를 돌아가며 돌을새김을 남겼다. 이곳은 건축 구조로 보아 거주지역이다⁴⁵⁾. 그렇지만 건물전체에 가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장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후계자가 고전기 시대의 왕에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발굴자에 의하여 5C4라고 분류된 이 건물을 일반적으로는 팔로(Falo)⁴⁶⁾ 신전이라고 부른다. 건물의 내부의 방의 양쪽 벽에는 남성 성기 모양의 뾰죽한 돌, 즉 팔로가 돌출되어 있어 성기(팔로)를 숭배하는 건물, 즉 성스러운 가계를 기념하여 지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외부의 벽에는 성기가 알을 깨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나오는 나무줄기를 양 손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줄기는 양쪽으로 뻗어나가며 잎사귀들과 꽃을 드리우고 있다(그림 7). 알에 꽃힌 성기의 뒤쪽으로 두 팔이 나와 있으며, 머리는 보이지 않지만 깨찰⁴⁷⁾의 깃털을 늘어뜨린 것이 보인다. 깨찰 새의 깃털은 고전기 마야시절부터 전사 또는 왕이 쓰던 장식물이다. 즉 이 보이지 않는 인물은 나라를 이끄는 중요한 가계를 세운 사람이다⁴⁸⁾. 이 줄기는 계속 이어져서 다른 면의 벽에는 앞에서 나오며 두 팔을 뻗은 남자와 이어진다(그림 8). 한 면에서는 알을 깨고 들어가고 다른 면에서는 뚫고 나와 역시 꽃과 잎이 풍성한 나무줄기로 연결된다. 아마도 세리에 이니시알 건축군(El grupo de Serie Inicial)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원을 보여주는 가계도일 것이라고 한다⁴⁹⁾.

긴 비문이 발견되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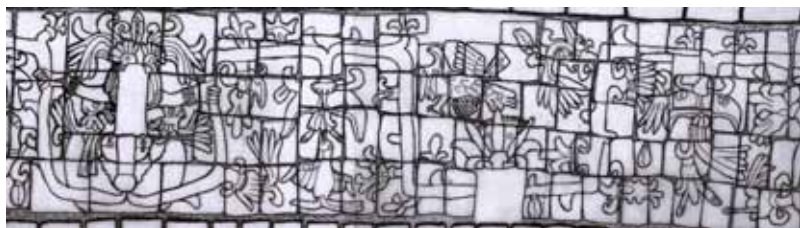
45) 현장의 발굴 책임자인 오소리오 레온과의 대화, 2002.

46) falo는 동물의 성기를 의미한다.

47) Quetzal, 마야지역에 사는 아름다운 색깔의 긴 깃털을 가진 새. 과테말라의 케찰은 유까탄, 멕시코 고원지대로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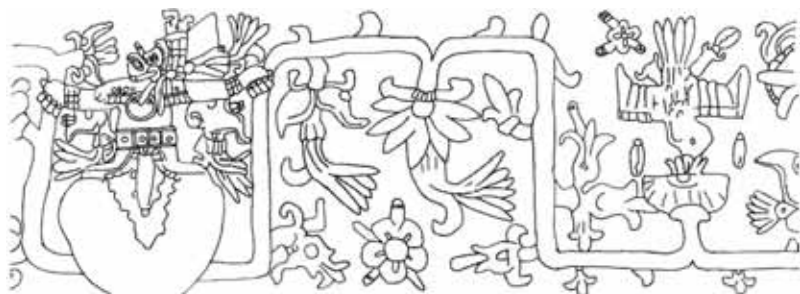
48) SCHMIDT, Peter, David STUART and Bruce LOVE, "Inscripciones e iconografía el Castillo Viejo de Chichen Itza", *The PARI journal* 9, 2010, 5-6쪽.

49) 현장의 발굴 책임자인 오소리오 레온과의 대화, 2002.



〈그림 7〉 5C5 건물, 치첸이쯔아.

왼쪽 끝부분에 알을 뚫고 있는 성기와 그 끝에서 나오는 줄기는 꽃을 피우며 양쪽으로 펼쳐지고 있다⁵⁰⁾. (치첸 이쯔아, 유까탄 현지소재)



〈그림 8〉 5C5건물, 치첸이쯔아.

왼쪽 끝부분에 알을 뚫고 나와 양 팔을 뻗어 나무줄기를 잡고 있는 인물이 있다. 줄기에는 잎과 꽃이 많이 달려있고, 새들도 날아와 풍요로움을 보여준다⁵¹⁾. (치첸 이쯔아, 유까탄 현지소재)

가계도는 어린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돌을세김으로 이어진다. 돌을세김의 벽화에서 손에, 향료 또는 따말⁵²⁾을 든 그릇으로 보이는, 헌정할 물건을 들고 있는 성장한 두 사람과 가운데의 어린이를 관찰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모습의 일부는 깨어져 있으나, 께찰(Quetzal)의 깃털을 길게 드리운 장식을 한 의례의 복장을 입고 있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그림 9).

50) Osorio León, José F. *La estructura 5C4(Templo de la Serie Inicial)*, Merida, Yucatan, 2004.

51) 위의 책, 6쪽.

52) Tamal, 옥수수가루를 뭉쳐서 찐 음식으로, 마야사람들의 주식이었다.



〈그림 9〉 5C4, 치첸 이쯔아, 유까
딤, 현지 소재
가운데의 어린이를 향하여 깃털을 꽂
은 크고 작은 두 남자가 향료 또는 따
말이 담긴 그릇을 바치고 있다.⁵³⁾



〈그림 10a〉 팔로 신전의 벽⁵⁴⁾ (5C4,
치첸 이쯔아, 유까딤, 현지 소재)

종이를 모은 그릇이 가운데에 있다.



〈그림 10b〉

가운데의 그릇에서 뱀이 나오고 있다.
깨찰 깃털을 단 남자와 박쥐 날개를 단
남자가 마주하고 있다.

그림 10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이 돌을 새김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다. 왼쪽 사람은 등에 박쥐와 비슷한 모양의 날개를 달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깃털을 늘이고 있다. 왼쪽의 그림(10a)에는 가운데에 그릇이 있고, 그릇에는 종이 같은 것이 두 개 꽂혀 있다. 오른쪽

53) Osorio León, José F. *La estructura 5C4(Templo de la Serie Inicial)*., Merida, Yucatan, 2004.

54) 위와 같음.

에 있는 그림(10b)의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그릇에서는 입을 벌린 뱀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그림(10b)은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10a에 있는 박쥐날개를 단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법은 약스칠란의 대들보 25의 경우와 같다. 즉 그림 10a는 현실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그림 10b)은 거울에서 보는 형상, 즉 신이 우리를 보는 방향이다. 따라서 장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은 두 남자가 피를 흘린 종이 담긴 그릇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태우자 조상신이 나타나서 인정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릇이 두 개인 것으로 보아 두 남자는 각각의 피를 바쳤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둘 다 분명히 남성이며, 또한 전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b에서 왼쪽 사람이 앞과 뒤에 늘이고 있는 두 개의 부싯돌 무기가 그가 입고 있는 의례복이 전사의 옷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 두 부싯돌 무기는 ‘재규어 신전의 벽면’ 돌을세김과 전사의 신전의 기둥의 전사의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⁵⁵⁾. 다른 한편, 박쥐의 날개를 드리우고 있는 사람은, 다른 세계 즉 지하세계를 대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박쥐는 동굴에서 살며, 어두운 때에 활동하는 새이다. 따라서 지하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마야사람들은 생명은 지하세계의 물에서 태어나고 또한 재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였다⁵⁶⁾. 지하세계와 지상세계가 어린이를 매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의 기본적인 개념은 약스칠란의 것과 같다. 그러나 약스칠란의 그림은 피라미드 복합군에 있는 신전의 대들보에 그려진 것으로 도시의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이다. 치첸 이쓰아의 이 그림들은 세리에 이니시알 건축군(El Grupo de Serie Inicial)에 새겨진, 이 건축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건축군에는 기둥이 많은 회랑의 건물, 팔로(Falo)가 있는 건물, 또한 작은 피라미드와 “시작 날짜(세리에 이니시알, Serie Inicial)”가 새겨진 천장을 포함하는 신전 등의 공공적인 요소가

55) Freidel, David, Linda Schele and Joy Parker, *Maya Cosmos*,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1993, 383쪽.

56) Rivera Dorado, Miguel, "Símbolos del Popol Vuh", *Religión y Sociedad en el area Maya*, Sociedad Española de Estudios Mayas, Instituto de Cooperación Iberoamericana, Caja Madrid, 1995, 249-264쪽.

포함되어 있으나, 이곳 자체가 들어오는 대문이 있는, 단친 건축군이다. 그리고 주거단지로 보이는 여러 작은 건물들이 복합되어 있다. 왕가의 직접적인 후손이 살고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계의 자손이 살고 있는, 말하자면 종가집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공공적인 것 보다 오히려 사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4. 맺는 말

마야문명은 기원전 약 1500년경부터 1500년까지, 3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하여 왕들이 다스리는 크고 작은 도시를 발달시켰고, 마지막에는 치첸 이쓰아와 같은 거대 도시를 일으켰다.

마야문명의 눈에 띄는 특색은 피라미드와 구기장, 돌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과 각각의 건축 내 외벽을 가득 장식한 돌새김과 상형문자의 비문이다. 후대의 연구자들은 피라미드와 그에 딸린 비문 등의 장식 등을 통하여 당시의 사고체계와 사회, 정치 체계 등을 유추한다.

고전기에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이 심하였다. 이러한 경쟁을 통하여 왕권은 견고하게 확립되어 가며 세력을 다투는 싸움도 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며, 경쟁적으로 크고 높은 피라미드를 세워 위엄을 과시하였다. 피라미드 앞의 공간에는 제단과 비문이 적힌 비석을 세웠다. 비문의 대부분은 날짜 기록부터 시작하여 왕들의 태어남과 죽음, 결혼, 전쟁을 기록한 연대기이다.

멕시코의 약스칠란 유적의 24, 25 및 17번의 대돌보에 남겨진 그림과 비문에는 세자가 태어난 것 등의 왕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 날, 왕과 왕비가 스스로의 피를 흘려 조상신의 신임을 얻는 장면을 새겼다. 피와 희생의 의미는 희생행위는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마야의 왕(또는 지도층)은 스스로 죽는 것을 의미하여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신에게 바침으로써 천체와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참여한다. 왕과 왕비가 흘리는 고귀한 피와 그 역할은 만민에게 알려야 했고, 이런 의례는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또

기념비를 세워 기억하도록 하였다.

반면 후기 고전기의 치첸 이즈아의 지배세력은 외부에서 이민을 간 부족들이었고 또한 현지의 토착세력도 있었다. 이즈아족은 맹주였으나 나라는 ‘불의 주군’이라 불린 여러 군주들이 함께 다스렸다. 공적인 기록인 비문에는 공동 지배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관계, 의례의 종류와 날짜 등을 기록하였다. 고전기 마야의 기념건물은, 건축한 왕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치첸 이즈아의 기록은 여러 군주들이 함께 한 헌정 의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개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희생의례는 없었다. 대신에 그들은 새로운 불을 지피는 의례를 하였다.

다른 한편, 자손의 태어남을 조상에게서 인정받는 의례의 기본 개념은 약스칠란의 대들보 17과 치첸이즈아의 5C4에서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와 어머니, 즉 특정한 사람의 피가 대들보 17의 주제였다면, 5C4의 주인공은 두 남자, 하나는 지하세계의, 다른 하나는 지상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받는 사람으로, 특정한 피를 강조하기보다는 한 가계를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계의 흐름은 피라미드와 같은 공공장소에 드러나 있지 않고, 가계의 내부 건축군의 벽에 돌을새김으로 남겨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였다. 두 도시의 의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스칠란	치첸 이즈아
왕권의례 집행자	왕, 왕비	여러 군주
의례 형태	스스로의 피를 흘림	새로운 불을 지핌
결과	환영을 받음	
의례의 장소	공공 장소	공공 장소
후계자 의례 집행자	부모	두 명의 대표자
의례 형태	피를 흘림	피를 흘림
결과	환영을 받음	환영을 받음
의례의 장소	공공 장소	개인적인 공간

고전기와 후기 고전기를 대표하는 두 도시의 의례에서 개인의 특별함에 의존했던 고전기의 사회에서 아직 전통을 따르지만 여러 군주, 대표자가 암시하는 보편적인 사회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정혜주, “치첸 이즈아 연대기의 문제점과 해석: 슬레이트 토기의 분석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 연구』 제 21권 4호, 2008, 113-138쪽.
- 토베, 칼, 『아즈텍과 마야 신화』, 이웅균, 천경효 공역, 범우사, 1998.
- BAUDEZ, Claude-François, *Una Historia de la religión de los Antiguos Mayas*, México, CEMCA, IIA, UNAM, 2004.
- BENAVIDES, Castillo, M. De la Garza, E. Matos Moctezuma, E. Nalda, L. Staines, *Los últimos Reinos Mayas*, México, Jaca Book, CONACULTA, 2001
- CHRISTEN, Allen J., *Popol Vuh: the sacred book of the maya*,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3.
- DE LA GARZA, Mercedes, "Mitos Mayas del Origen del Cosmos", *Arqueología* No. 56, México: INAH, 2002, p.36-41.
- GRUBE, Nikolai, et. al., *Maya: Di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Germany: Könnemann, 2001.
- FREIDEL, David, Linda SCHELE and Joy PARKER, *Maya Cosmos: Three Thousand Years on the Shaman's Path*,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1993.
- LANDA, Fray Diego de, *Relación de las cosas de Yucatan*, México, Editorial Porrúa, S. A., 1986.
- LÓPEZ AUSTÍN, Alfredo,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Temas mesoamericanos*, México:INAH, 1996, p.471-507.
- MARTIN, Simon, "Under the deadly star: warfare among the Classic maya", Grube, Nikolai, et. al., *Maya: Di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Germany: Könnemann, 2001, p.174-185.
- MARTIN, Simon and Nikolai GRUBE, *Chronicles of the Maya Kings and Queens: Deciphering the Dynasties of the Ancient Maya*, London: Thames & Hudson, 2000.
- MILLER, Mary Ellen, *The Art of Mesoamerica: from Olmec to Aztec*, London: Thames & Hudson, 1996.
- MORLEY, Sylvanus, *La civilización Maya*, México: FCE, 1987. 첫 출판 1946년.

- HENDRICKSON, Carol, "Twin Gods and Quiche Rulers: The relation between divine power and kingly rule in the Popol Vuh", *Word and Image in Maya Culture*,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89, p.129-139.
- KROCHOK, Ruth, *Hieroglyphic Inscriptions at Chichen Itza, Yucatan, Mexico: The Temples of the Initial Series, the One Lintel, the Three Lintels, and the Four Lintels*, Research Reports on Ancient Maya Writing 23. Washington, D.C.: Center for Maya Research, 1989.
- _____*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 Chichen Itza, Yucatan, Mexico*. 박사학위 논문,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1998.
- OSORIO LEÓN, José Fracisco, *La estructura 5C4(Templo de la Serie Inicial): Un edificio clave para la cronología de Chichen Itza*. 학위논문, Merida, Yucatan, México, 2004.
- PEREZ SUAREZ, Tomas, 'El dios del maíz en Mesoamerica', *Arqueología* No. 25, México: INAH, 1997, p. 44-55.
- PIÑA CHAN, Roman, *Informe preliminar de la reciente exploración del Cenote Sagado de Chichén Itzá*, Serie de investigación 24, México: INAH, 1970.
- _____*Chichén Itzá: la ciudad de las brujas del agua*, México: FCE, 1987. 첫 출판 1980년
- PROSKOURIAKOFF, Tatiana, *Historia Maya, México: Siglo Veintiuno editores*, 1994.
- RINGLE, William M. "Who was who in ninth century Chichen Itza", *Ancient Mesoamerica*,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233-43.
- RIVERA DORADO, Miguel, "Una Interpretacion del mito de Hunapu e Xbalanque", *Memoria del Primer Coloquio Internacional*, México: UNAM, 1987, p.1115-1132.
- _____"*Símbolos del Popol Vuh*", *Religión y Sociedad en el area Maya*, p. 249-264, Sociedad Española de Estudios Mayas, Instituto de Cooperación Iberoamericana, Caja Madrid, 1995.
- ROYS, Ralph, L., *The Book of Chilam Balam Chumayel*, Universityn of Oklahoma press, Norman, 1973, 첫 판 1967.
- RUPPERT, Karl *Chichen Itza: Arquitectural Notes and Plans*, 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pub. 595, 1952.
- SCHELE, Linda and David FREIDEL, *A Forest of Kings: the untold history of*

- the Ancient Maya*,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New York, 1990.
- SCHELE, Linda and Mary Ellen MILLER, *The Blood of Kings*, London: Thames & Hudson Ltd., 1992.
- SCHELE, Linda and Peter MATHEWS, *The Code of Kings: The Language of seven sacred Maya temples and tombs*, New York: Scribner, 1998.
- SMITH, Robert E., *The Pottery of Mayapan*, Papers of the Peabody Museum vol. 66, Harvard University, 1971.
- SCHMIDT, Peter, David STUART and Bruce LOVE, "Inscripciones e iconografía el Castillo Viejo de Chichen Itza", *The PARI journal* 9(2):1-17, 2010.
- TEDLOCK, Dennis, *Popol Vuh: El libro Maya del albor y de la vida y las glorias de Dioses y Reyes*, México: Editorial DIANA, 1993. 1985년 끼체 마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첫 출판.

❖ ABSTRACT

A Study of Social Change from Classic to Postclassic

Hea Joo Chung

The Lord of Mayan society was a person who was thought to be able to understand phenomena in the universe. And also the Lord could realize these activities of heaven on Earth through ritual. But the manifested ritual function of lordship was very different depends on Classic and Postclassic period.

The Classic Mayan rituals were closely related to personal dignity, specially royal blood tradition meanwhile the Postclassic Mayans focused on public function of ritual. The ritual sacrifices of blood letting from their own body, manifested in Yaxchilan Lintel 24, 25 and 17, were focused on royal family's activity, showing the dignity of royal blood. The same ritual about the birth of family successor was observed at the Structure 5C4 from Postclassic ruin of Chichen Itza. However, this scene in focus, was two representative men and the answer of ancestor, not a special person. Also at the Lintel 1 of Temple of Four Lintels it was observed names of four Lords of Chichen Itza, their relationship, their action of firing to dedicate temple instead of writing long history of great royal family.

All above shows that during Postclassic period the lords preferred a public function of their lordship than to dignify some royal persons through ritual.

Key Words

의례, 고전기, 후기고전기, 죽음과 재생, 개인, 공공

Ritual sacrifice, Classic, Postclassic, Personal, Public

논문접수일: 2011. 01. 24.

심사완료일: 2011. 02. 20.

게재확정일: 2011. 03. 10.